

쪽파 포장을 위한 경제성 고찰

박형우^{1,†} · 장종근¹ · 김상희¹ · 김수일²

¹한국식품연구원

²김수일포장연구소

Economic Analysis of Chives for Packaging

HyungWoo Park^{1,†}, Jongkun Jang¹, SangHee Kim¹ and Suil Kim²

¹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²Kim's Packaging Institute

Abstract Economic feasibility was analyzed for packaging of chives, which are currently distributed without packaging. The additional revenue from packaging of chives was estimated to be 3,471 million won in summer season (May to September in Korea) and 3,083 million won in winter season (October to April). But, the additional cost due to packaging was estimated to be 1,926 million won in summer season and 1,254 million won in Winter season. Thus, net profits were estimated to be 1,545 million won and 1,829 million won respectively. In terms of unit (1.4 kg), the net profit with packaged distribution estimated to be 247.9 won/unit in summer season and 226.5 won/unit in winter season, respectively. therefore, total profit through packaging was estimated to be 2,799 million won per year.

Keywords Chives, Packaging, Economic feasibility

서 론

쪽파는 겨울이 지나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동충이라 불리며, 대파와 양파가 씨로 번식하는 반면 쪽파는 뿌리로 번식한다. 날씬한 줄기에 흰 점이 없고 끝이 마르지 않는 진한 녹색을 띤 것을 상품으로 평가한다.

쪽파는 품목 특성상 열량이 많으므로 상품성 저하 방지를 위해 신속한 유통과 함께 품목의 특성을 고려한 포장방안 설정이 필요하다. 쪽파의 재배면적은 2004년 9,397 ha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재배규모가 감소하면서 2009년에는 40%나 감소한 5,566 ha이었다. 주 산지는 전남 보성, 무안 등과 충남 서산, 경남 김해, 제주지역이며, 보성과 무안지역에서 전국 생산량의 약 35%를 출하하고 있다. 쪽파의 재배 작황은 김장용 쪽파는 8~9월에 파종하여 11~12월에 본격적으로 출하되며, 여름쪽파는 6~7월에 파종하여 8월 중순 이후부터 김장철 전까지 출하되고 있다. 최근에는 비닐하우스

스를 이용하여 9월 하순부터 이듬해 5월까지 출하하고 있다¹⁾. 쪽파의 유통현황은 1~2월의 동절기에는 제주지역에서, 6~7월에는 충남 예산, 아산 등지에서 하우스재배를 통해 포장출하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으나, 출하량이 가장 많은 김장철에는 포장 출하량이 20% 미만²⁾이며, 시장 내 환경오염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비포장출하로 인해 물류체계 개선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쪽파의 포장방안 도출이 필요하며 먼저 포장을 위한 경제성 고찰을 하고자 한다.

유통 및 포장 현황

1. 유통실태

쪽파의 유통실태를 나타낸 것은 Table 1과 같다. 1~2월 동절기에는 제주 지역에서, 6~7월에 충남 예산, 아산 등지에서 하우스재배를 통해 포장 출하가 증가하나, 연중 물량이 가장 많은 김장철에는 포장 출하량이 2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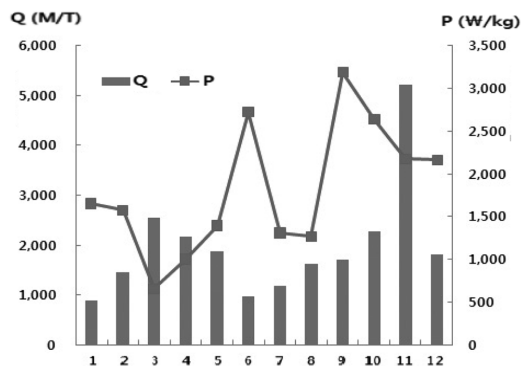
[†]Corresponding Author : Hyung Woo Park
516, Baekhyun-dong, Bundang-Ku, Kyunggi-Do, R.O.K. 463-420
E-mail : <hwpark@kfri.re.kr>

Table 1. Distribution volume of chives at Garak wholesale market (2009)²⁾

Period/ month	Total		Non-packed	
	Quantity (M. ton)	Volume (M.won)	Quantity (M.ton)	Volume (M.won)
2007. 1	891	1,470	210 (23.6%)	301 (20.5%)
2007. 2	1,452	2,285	415 (28.6%)	461 (20.2%)
2007. 3	2,542	1,663	1,850 (72.8%)	1,033 (62.1%)
2007. 4	2,164	2,168	1,695 (78.3%)	1,602 (73.9%)
2007. 5	1,879	2,621	1,522 (81.0%)	2,063 (78.7%)
2007. 6	965	2,628	629 (65.2%)	1,710 (65.1%)
2007. 7	1,173	1,536	742 (63.3%)	1,005 (65.5%)
2007. 8	1,614	2,048	1,155 (71.6%)	1,357 (66.3%)
2007. 9	1,711	5,455	1,128 (65.9%)	3,388 (62.1%)
2007. 10	2,267	5,985	1,406 (62.0%)	3,967 (66.3%)
2007. 11	5,219	11,346	4,262 (81.7%)	9,431 (83.1%)
2007. 12	1,818	3,929	1,453 (79.9%)	2,941 (74.8%)
Total	23,695	43,133	16,467 (69.5%)	29,260 (67.8%)

2. 도매시장 반입 및 가격 동향

쪽파의 산지 재배 동향을 살펴보면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여름쪽파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5~9월 비중은 1990년대 20%에서 2000년대 중반 26%로 확대되고 있다. 가락시장 반입 및 가격동향을 나타낸 것은 Fig. 1과 같다. 월별

**Fig. 1.** Monthly quantity (Q) and price (P) of chives dealt in Garak Wholesale Market.**Table 2.** The packaging ratio of chives in Garak wholesale market²⁾

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Average
Packed ratio (%)	48.6	45.0	39.8	37.1	30.5	40.2

반입 비중은 김장철인 10월이 가장 높고, 봄철인 3~4월도 높은 편이고, 가격은 물량이 적은 6월과 김장수요가 많은 9월에 연중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3. 포장실태

쪽파의 포장화율을 나타낸 것은 Table 2와 같다. 포장화율은 2003년 48.6%를 나타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07년에는 30.5%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산물 출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산물쪽파가 상장애외품목으로 지정된 2000년 이후 경매보다는 상장애외 거래가 활성화되고, 산지 역시 작업이 수월한 산물 출하 비율을 늘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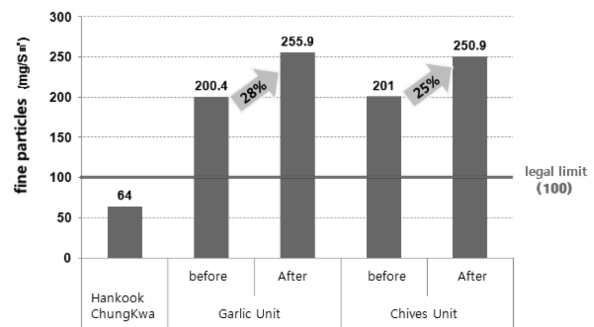
4. 비포장(산물) 유통의 문제점

1) 물류체계 개선 저해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포장을 통한 농산물의 표준화, 규격화에 의한 기계화가 필수적이나 관행적인 비포장 산물형태의 출하는 물류체계 개선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도매시장 및 소비자 시장 환경 저해

산지에서 상품화 작업 없이 산물 상태로 반입됨에 따라 흙이나 먼지의 여과 과정이 없이 도매시장의 환경 저해 및 도매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고, 소비자 시장 역시 흙, 먼지로 인해 매장이 불결해 소비자 구매 여건이 열악해진다. 산물쪽파 매장에 대한 미세먼지(PM₁₀)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쪽파 거래가 본격화된 후에는 거래 이전보다 25~28% 증가하였으며, 이는 법적 허용기준인 100 mg/S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이다.

**Fig. 2.** Fine particles of chives unit in Garak wholesale market.

5. 포장화 부진 요인

1) 작업 단계 증가

기존 산물 출하에서 포장화를 할 경우 포장작업으로 인해 고용 인력이 증가하므로 인건비가 증가하게 된다. 산물 포장 시 1단 묶음을 1.4~1.5 kg 단으로 작업하는 반면 포장화 시에는 500 g~1 kg 단으로 작업하게 되므로 단 묶음 작업이 늘어나고 이를 상자에 포장하고 다시 테이프로 상자를 묶는 작업이 발생하고 있다. 운송비의 경우 낮은 적재량으로 운송 효율이 저하되어 비용이 증가한다. 산물로 출하할 경우 1톤 차를 기준으로 보통 2,000단에서 2,200~2,300단을 실을 수 있지만(포장 시 230박스 규모), 포장박스로 운송할 경우 150상자 밖에 실리지 않아 30% 가량 적재량이 적어지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며,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포장재비의 경우 박스포장 비용이 증가하고 포장재비는 포장에 따른 상자비용으로 보통 10 kg 중 이상자의 경우 600~900원까지 있으나 보편적으로 700~750 원대의 박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포장화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2) 산지 작업 인력 부족

산지에서는 노동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작업인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김장철 가락시장 공급량의 80% 가량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전남 보성의 경우 짧은 시기에 집중 출하됨으로써 출하 작업 인력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포장 시에는 산물작업보다 1.5~2배 가량 인원이 필요하나 작업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보성에서는 작업량이 많을 경우 인력이 부족해 인근 지역에서 인부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3) 품목 특성에 따른 포장재 개발 필요

쪽파는 열이 많은 채소로 여름철에는 운송 중 상품성 저하의 문제로 남부권 출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름철 쪽파의 품질 특성에 적합한 포장재 개

발 및 방법이 필요하다.

4) 거래제도와 관련한 사항

현재 포장품은 경매품목으로, 산물품은 상장예외로 허용되어 있어 일부 출하자들은 포장 출하 시 경매를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들 출하자들은 중도매인들과 지속적인 유통정보 교환을 통해 수급조절이 원활하고 가격도 높다는 점에서 상장예외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5) 가락시장에서만 포장 출하를 추진할 경우 유통인 불만 야기

거래 물량 감소에 따른 영업 위축과 대량 출하처 상실로 인한 중도매인과 출하자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

6. 포장화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1) 배추·무, 마늘 포장화 정착 요인 및 성과

국내정착 요인은 정부 및 개설자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비 포장품 전면 반입금지 동시 실시와 산물출하 및 포장출하에 대한 페널티 부과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산지 및 소비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포장출하 취지 및 목적, 포장출하 시 경제적 이익 등이 부여되어야 하며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가 필요하다. 국내 포장 출하 성과는 도매시장 운영효율 증대 및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서 반입 차량 및 적치 면적 감소에 따른 교통 소통 원활 및 매장활용도 제고와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흙먼지 발생 원인을 제거하여 시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포장 출하함에 따라 등급별 선별이 양호하여 속박이 해소와 포장 출하품에 출하자 성명, 연락처, 상호, 수량(중량) 및 출하 지역(산지) 등을 표시하여 상품의 신뢰성 향상이 필요하다. 고품질 상품 출하를 통해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와 포장 상품으로 출하되면서 선도 등 상품성 향상으로 고품질화를 유도하여 거래



Outer Box



Inner pack with MA film

Fig. 3. Packaging of chives in Japan.

활성화 및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기할 수 있다.

2) 일본의 쪽파 포장

일본의 경우 쪽파는 100% 포장 유통됨으로써 고품질화를 유도하며, 소비지 시장 역시 흙먼지가 감소하는 등 시장 환경이 쾌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Fig. 3은 일본의 쪽파 포장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은 쪽파를 산지에서 세척하여 유통하며, 상품의 특성상 부드러운 제품이 잘 훼손되므로 먼저 필름포장을 한 후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유통²⁾하고 있다.

포장화에 따른 경제성 분석

1. 쪽파 포장화의 필요성

채소류의 포장화는 산물 출하에 비하여 규격출하를 가능하게 하고, 물류체계의 개선을 용이하게 하며, 산지의 포장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듬어 소비지에서의 채소류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가장 비중이 큰 배추와 무를 대상으로 우선 포장화가 추진되어 배추와 무의 경우 포장화가 되지 않으면 도매시장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쪽파의 포장화는 일반적인 채소류의 포장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 외에도 일반적인 채소류에는 없거나 미약한 미세먼지발생 억제라는 효과가 추가되며, 정부에서는 채소류의 포장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 재료비의 40%를 지원하고 있다.

2. 쪽파 포장화에 따른 유통비용 분석

1) 분석을 위한 가정

쪽파는 가락동 도매시장에 연중 출하되고 있지만 하절기에는 주로 서산, 서천산이 출하되고 있으며, 김장철을 비롯한 동절기에는 보성 등 남부지역에서 생산된 쪽파가 출하되고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본 분석에서 쪽파를 3월부터 9월 사이에 출하되는 쪽파는 하절기 쪽파로,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출하되는 쪽파는 동절기 쪽파로 구분하고, 하절기 쪽파는 서산산과 비용구조가 같다고 가정하며, 동절기 쪽파는 보성산과 비용구조가 같다고 가정하고 분석한다. 하절기 출하되는 쪽파는 골판지포장 시 품질유지를 위해 필름으로 감싼 후 골판지 상자에 넣으며, 동절기 쪽파는 필름 없이 골판지 상자에 넣는 것으로 가정하여 고찰한다.

2) 수확비용

쪽파를 밭에서 수확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수확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포장비, 운반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물출하 작업의 경우 1인당 하루 약 700 kg(500단) 정도를 수확할 수 있으므로 700 kg 작업을 기준으로 산물출하와 포장출하의 비용을 비교해 보면, 산물

출하의 경우 1인당 하루 인건비는 보성지역 40,000원, 서산지역 4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³⁾. 산물출하의 경우 700 kg(500단) 작업에 42,500원이 소요되는 반면 포장출하의 경우 산물출하에 비해서 50~100% 정도의 작업량이 증가하지만 평균 75% 정도의 작업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환언하면 산물출하 시 1인이 할 수 있는 물량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포장출하 시 1.75인이 작업을 하여야 하고, 달리 1인 작업을 기준으로 하면 산물출하의 경우 700 kg을 작업할 수 있지만, 포장출하의 경우 400 kg밖에 작업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700 kg 작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포장출하의 경우 인건비는 산물출하의 경우보다 75% 증가한 74,375원에 이르며, 연간 및 월별 쪽파의 가락시장 출하량은 2007년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3) 포장재비용

산물출하의 경우 박스포장은 하지 않지만 1단(1.3~1.5 kg) 단위로 묶음 끈이 소요된다. 묶음 끈은 1롤이 35,000원이며, 1롤이면 5,000단을 묶을 수 있으므로 1단 가격으로 환산하면 7원이 소요되며, 500단 작업에 3,500원이 소요된다. 포장출하의 경우 0.5~1 kg 단위로 묶음 끈을 묶어 10단위로 박스포장을 한다. 따라서 동일한 원물을 작업하는데 있어 산물출하보다 작업인원이 75% 정도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포장을 위해 10 kg용 박스 70상자가 필요하다. 박스가격은 하절기(3월~9월) 필름포장을 하는 경우 850원, 동절기(10월~2월) 필름포장이 필요 없을 시 750원짜리가 필요하므로 700 포장시 박스비용은 하절기 59,500원, 동절기 52,500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하절기는 서산산이 주로 출하되고 동절기에는 보성산이 주로 출하되므로 서산산이 59,500원, 보성산이 52,500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한다. 포장출하를 위해서 0.5 kg 단위로 묶기를 해야 하므로 묶음 끈이 700 kg 포장에 소요되는 묶음 끈은 산물출하의 3배가 소요된다. 따라서 금액으로는 3,500원×3배=10,500원에 이른다. 서산산의 경우 하절기 출하를 위해서 박스 당 필름포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단가 65원인 필름이 70장 필요하다. 따라서 700 kg 포장에 필요한 필름비용은 650원이 소요된다.

4) 운송비용

산물출하의 경우 1톤 트럭에 보통 2,000단을 적재할 수 있으며, 많게는 2,200~2,300단까지 적재 가능하다고 한다. 본 분석에서는 2,000단을 적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단에 1.4 kg하는 쪽파 2,000단을 적재하면 적재량은 2,800 kg을 적재하는 것이 된다. 운송비용은 1톤 트럭 기준 보성에서 가락시장까지는 350,000원, 서산에서 가락시장까지는 230,000원하므로 500단(700 kg)의 운송비용은 보성에서는 87,500원, 서산에서는 57,500원이 소요되며, 포장출하의 경우 박스를 포갤 수 있는 정도에 제한이 있어 1톤 트럭 기

준 1상자에 10 kg하는 상자 150개 밖에 적재할 수 없다. 즉, 쪽파 중량을 기준으로 1,500 kg밖에 적재할 수 없다. 따라서 700 kg(70박스)을 적재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용은 보성기준 163,333원이며, 서산기준 107,333원에 달한다³⁾

3. 쪽파 포장화에 따른 수익성

1)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 시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

하절기 쪽파의 평균가격은 산물출하의 경우 1,394원/kg이고, 포장출하의 경우 1,792원/kg으로 포장출하의 경우에 398원/kg을 더 받는다. 하절기에 산물로 출하되는 물량 8,721톤을 전부 포장화할 경우 농가 수취액은 12,157백만원에서 15,628백만원으로 3,471백만원 만큼 증가하고, 동절기 쪽파의 평균가격은 산물출하의 경우 2,208원/kg이고, 포장출하의 경우 2,029원/kg으로 포장출하의 경우에 179원/kg을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격만을 비교하면 동절기에는 산물출하 쪽파가 포장출하 쪽파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동절기 출하되는 쪽파는 보성을 비롯한 남부지역의 산물출하 쪽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박스포장으로 출하되는 쪽파와 품질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하절기 쪽파와 같이 산물출하와 포장출하 쪽파를 단순 가격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동절기에 출하형태에 따른 쪽파의 가격 차이는 하절기와 같은 398원/kg이라고 가정하고 수익을 산정하며 이 같은 가정하에 동절기에 산물로 출하되는 물량 7,746톤 전부를 포장화 할 경우 농가 수취액은 17,103백만원에서 20,186백만원으로 3,083백만원 만큼 증가하고 쪽파의 포장화로 인한 전체 농가 수취액은 6,554백만원 증가하게 된다.

2)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 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하절기 쪽파의 출하 비용은 산물출하의 경우 700 kg당 106,000원으로 출하물량 8,721톤의 출하비용은 1,321백만원에 달하며 하절기 쪽파의 포장출하비용은 700 kg당 260,633원으로 산물출하물량 8,721톤을 전부 포장출하하면 출하비용은 3,247백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산물출하 쪽파를 포장화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출하비용은 1,926백만원에 이르며 동절기 쪽파의 출하비용은 산물출하의 경우 700 kg당 131,000원으로 출하물량 7,746톤의 출하비용은 1,450백만원에 이르고, 동절기 쪽파의 포장출하비용은 700 kg당 296,333원으로 산물출하물량 7,746톤을 전부 포장출하하면 출하비용은 3,279백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산물출하 쪽파를 포장화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출하비용은 1,829백만원에 달한다. 연간 16,467톤의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출하비용은 연간 3,755백만원에 달한다.

3)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한 순수익

하절기에는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하여 추가로 얻

게 되는 수익은 3,471백만원에 이른다. 반면 이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1,926백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하절기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한 순수익은 1,545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kg당으로 환산하면 177.2원, 1단(1.4 kg) 기준으로 환산하면 247.9원의 수익성이 제고되며, 동절기에는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하여 추가로 얻게 되는 수익은 3,083백만원에 이른다. 반면 이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1,829백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동절기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한 순수익은 1,254백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kg당으로 환산하면 161.8원, 1단(1.4 kg) 기준으로 환산하면 226.5원에 달한다.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하여 추가로 얻게 되는 순수익은 하절기 1,545백만원, 동절기 1,254백만원으로 모두 2,799백만원에 이른다. 이를 당으로 환산하면 170.0원, 1단(1.4 kg) 기준으로 환산하면 238.0원에 달한다.

4. 쪽파 포장화에 따른 편익⁴⁾

1)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쪽파의 포장화로 농가 수취가격의 상승과 같은 직접적인 수익의 증가 이외에도 포장화에 따른 다양한 부가적 이익이 있다.

2) 먼저, 미세먼지 감소에 의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있다. 산물출하 되는 쪽파의 포장화로 인하여 쪽파의 매장에 발생하는 부유 미세먼지의 감소로 인하여 관련 종사자의 의료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3) 다음으로 쪽파를 골판지박스에 포장함으로써 시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가 가능하므로 하차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또한 하차 작업시 기계화가 가능하여 인력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유통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4) 신속한 하차작업으로 트럭의 대기시간 단축과 유류의 절감이라는 효과를 발생한다.

5)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산물출하에 비해 규격화가 용이하여 유통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소비자의 쪽파에 대한 품질평가 제고효과를 거둘 수 있다.

5. 쪽파의 포장화를 위한 대책⁵⁾

1) 쪽파의 포장화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7년, 2008년 포장재비의 40%를 보조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조를 고려하면 농가의 소득은 더욱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2009년부터는 포장화율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수준을 60%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2)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쪽파를 포장출하하면 산물출하 시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증가된 수익이 포장으로 인한 증가된 비용보다 커 전체적으로 농가수익이 증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쪽파의 포장출하 비율은 2003년 48.6%에서 2007년 30.5%로 오히려 감소한다.

3) 쪽파의 포장출하로 인한 수익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출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부터 쪽파의 포장화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강화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쪽파의 포장화율이 낮아진 원인은 포장쪽파는 경매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지만, 산물출하된 쪽파는 상장예외 거래가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지 중간상들이 포장출하보다는 작업이 수월한 산물출하를 선호한다. 따라서 쪽파의 포장출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더하여 산물출하가 어렵도록 제도적인 보완 필요하다.

5) 이를 위한 대안은 포장된 쪽파만 도매시장에 반입을 허용함과 함께 포장쪽파의 등급과 규격을 제정하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쪽파는 경매를 의무화하여, 포장출하된 쪽파와 산물출하된 쪽파의 경매가격 차이가 크게 나도록 해야 한다.

요 약

쪽파 포장화를 통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는 현재의 산물출하 쪽파를 포장출하로 인한 순수익을 살펴보면, 하절기에는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하여 추가로 얻게 되는 수익은 3,471백만원(2007년 생산량 기준)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1,926백만원이다. 따라서 하절기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한 순수익은 1,545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kg당으로 환산하면 177.2원, 1

단(1.4 kg) 기준으로 환산하면 247.9원 수익성이 제고된다. 동절기에는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하여 추가로 얻게 되는 수익은 3,083백만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1,829백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동절기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한 순수익은 1,254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kg당으로 환산하면 161.8원, 1단(1.4 kg) 기준으로 환산하면 226.5원에 달한다. 따라서,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하여 추가로 얻게 되는 순수익은 하절기 1,545백만원, 동절기 1,254백만원으로 모두 2,799백만원에 이른다. 이를 kg당으로 환산하면 170.0원, 1단(1.4 kg) 기준으로 환산하면 238.0원에 달한다.

참고문헌

1. KREI. 2005. Agricultural Outlook 2005-Perspective and Challenge of Korean Agriculture. Vol. II, Part. 5, Chap. 17.
2. Seoul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Corporation. 2003. Logistics of Major Agricultural Products by 2003. Chap. 6.
3. Kim, D. W. 1992. A Study on the Customary Operation of Information of Standard and Logistic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Its Performance, M. S. Thesis in KyungBuk University. Chap. 3.
4. KREI. 1995.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Packaging Center for Agricultural Products. Chap. 3
5. KREI. 2008. Monthly Outlook of Vegetables, 2008. Jan.-Dec.